

# 부산시, 2200억 규모 'BGF리테일 물류센터' 투자유치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첫삽  
2026년 가동·800여명 고용 예정  
항만 인접 등... 전국 최고 교통망

부산시는 3일 오후 2시 30분 BGF 리테일의 부산 신규 물류센터 건립 현장에서 기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은 박형준 시장, 홍석조 BGF그룹 회장,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기념사 및 축사 ▲기공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기공식은 박 시장이 취임 후 이뤄낸 두 번째 대기업 투자 유치인 BGF리테일의 부산 신규 물류센터 건립 투자가 본격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GF리테일은 대한민국 1등 편의점 씨유(CU)를 중심으로 물류, 식품 제조, 서비스 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이다.

기공식을 시작으로 BGF리테일은 2026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강서구



3일 부산 강서구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에서 열린 BGF리테일 부산 신규 물류센터 기공식에서 BGF 홍석조 대표이사 부회장(왼쪽에서 첫번째), BGF 홍석조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시삽하고 있다. /BGF리테일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4만 7000㎡ 규모 부지에 연면적 12만 8000㎡에 달하는 부산 신규 물류센터 건설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2200억원을 투자하고, 생산관리·현장 작업·배송 기사 등 운영 인력 800여 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BGF리테일은 이번 물류센터 신축으로 보유 중인 물류센터 중 가장 큰 물류센터를 부산에 갖추게 된다.

특히 물류센터가 들어설 국제산업

물류도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있고, 부산신항만과 인접해 전국 최고의 물류 교통망을 자랑하며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신공항과도 인접해 있어 앞으로 이 물류센터를 수출 전진기지로도 활용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이번 BGF리테일의 신규 물류센터 건립에 이어 앞서 투자유치한 롯데쇼핑, 쿠팡, LX인터내셔널 등 세계적 물류·유통기업들의 물류센터

까지 모두 부산에 조성되면, 이들 시설이 부산의 세계적 물류 거점 기반 시설과 상승 효과를 내 대한민국 물류 유통 산업 판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며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실현할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은 이미 세계 2위의 환적항,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통한 우수한 항공 물류망, 디지털 혁신 기술 등 세계적 물류거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대한민국 1등 편의점 씨유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실현할 전초기지가 될 신규 물류센터를 착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3고(高) 현상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비제프리테일의 2200억이라는 과감한 투자는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고흥군

#### 광주시립미술관과 문화예술 '맞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일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과 상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수실에서 공영민 군수와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 및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한 문화, 예술, 관광자원을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흥(경남)=양수영 기자

### 경남도

#### 폴란드 항공·방산사와 투자협약

경남대표단이 지난 2일 오후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를 방문에 이어 바르샤바의 머큐어 그랜드 호텔에서 항공 엔진 MRO 전문기업 영에비에이션과 방산기업 매티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영에비에이션 정영근 대표이사, 매티스 박종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영에비에이션은 2013년 설립된 민항기 엔진 수리 중심의 MRO 전문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 사천시 축동일반산업 단지에 국내 복귀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엔진 MRO 국내법인을 설립해 약 200억원을 투자하고 45명의 신규 고용으로 MRO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 부산시-부산상의

#### '원스톱기업지원센터' 확대 개편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기업 투자 지원과 애로 해소, 각종 기업 정책과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시 원스톱기업지원센터는 부산상의에서 근무하게 되고, 부산상의 내 기업 애로와 규제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규제개선팀'과의 업무 협력이 이뤄져 종전 3명이던 전담 인력도 6명으로 크게 늘었다.

부산상의는 이번 원스톱기업지원센터의 이전 및 확대 개편과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 산청군

#### NH농협과 '중소 금융지원' 나서

경남 산청군은 NH농협산청군지부와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관심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특히 경기침체 심화와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

국정방향 부응하는 대응책 마련

경북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방향에 부응하는 지방 차원의 선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 대표, 저출생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및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 분석, 경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전문가 저출생 정책 제안 발표, 저출생과 전쟁 전략 홍보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지사는 정부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 구조의 전면 개편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이 지사가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라 지적해 온 수

도권 집중과 교육 개혁 등 국가 구조 대전환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교육과 의료문제 개선을 제시한 만큼, 지역에서도 자녀 교육과 필수 의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주민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시간 이내의 진료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대학 집중육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으며 경북도는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세대를 위한 Big Push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육·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사업 원점 재검토와 재설계 방침을 밝힘에 따라, 도는 정책 모니터링 단 등을 통해 기존 과제 점검, 예산 재조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 포항시, 추석 맞아 민생 현안 점검

비상진료체계 구축 등 논의

경북 포항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기관·단체장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항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대책을 중심으로 연휴 비상 진료 대책과 안전 취약시설 점검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기관·단체장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지역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시

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키로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방역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감염취약시설 선제 관리로 대규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명절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 분야별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집중호우·강풍과 같은 자연 재난에 대비해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조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북(포항)=나영조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의 날' 개막식에 참석해 양부남·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지역구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의원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 전국 최초 '국회, 광주의 날' 개막 협력 통한 지방분권시대 서막 올라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 목표  
광주시, 각 정당과 정책협약  
韓 변화 위한 실험무대 의지

부-국회-정당 간 새로운 협력 시스템 마련,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자 기획했다.

국회에서 '지자체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광주시는 각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는다. 정당은 '정책 실증의 장'으로 광주가 필요하고, 광주는 국회의 입법권·예산권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협약을 통해 정책파트너로서 공감대를 이뤘다.

실제 우리나라 지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지역소멸,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로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의 우선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국회, 광주의 날'이 2일 개막했다. 국회에서 '지자체의 날'이 개최된 것은 전국 최초다. 지방정부-국회-정당 간 협력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지방분권시대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일 서울 국회에서 '국회, 광주의 날' 개막식을 열고 3일까지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했다.

'국회, 광주의 날'은 2025년 지방자치시대 30년을 맞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정

## '울산 지능형도시 서비스' 알린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여

울산시는 3일부터 5일까지 고양 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2024)'에 '울산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전세계 정부, 기

업, 전문가들이 모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지능형도시 행사다.

울산 전시관은 '4차 산업 도약을 위한 신(新)울산 4.0 지능형도시 구축'을 주제로, '이동수단 구역', '에너지 구역', '생활 구역', '데이터구역'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울산형 지능형도시 서비스를 소개한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